

# (세 법)

해설 위원: 박 창 한 교수

본 문서 내용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공무원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총평>

올해는 최근 몇 년간의 어려웠던 9급 세법개론의 출제경향에 비해 대부분 무난한 문제들로 구성된 평이한 난이도 수준이었습니다. 1~2문제가 조금 구석진 내용이긴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수험생 입장에서 전형적이고 많이 다루어 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구성은 국세기본법 4~5문제, 소득세법 4~5문제, 부가가치세법 4문제, 법인세법 5~6문제, 국세징수법 1~2문제로 구성(일부 중복세목으로 출제)되었으며, 최근의 경향과 같이 올해에도 상속세및증여세(전년도는 출제)와 종합부동산세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시험 직전에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윌비스 세법 박창한

문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②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 [정답] ④

[해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문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③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 ④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정답] ②

[해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문 3.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②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④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정답] ①

[해설]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문 4.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 ④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④

[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문 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정답] ③

[해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선적된 물품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당기순이익	1억원
(+) 익금산입액	없음
(-) 손금산입액	토지 임의평가이익 1천만원
각사업연도소득금액	9천만원

문10.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참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일반적·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과 관련된)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제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조세불복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
- ㉦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 ㉡ 이외의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문11.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 ③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 ④ 시설의 개제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포함한다.

문12. 국제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 ②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 ③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제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제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제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정답] ②

[해설]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납세담보는 반드시 법에 열거된 법정자산에 한한다.

문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 ②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 ③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④ 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정답] ④

[해설]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참고)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한 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문14.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 ② 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 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④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 및 폐업 여부와는 무관하다.

(참고)

법인과 달리 개인은 사업연도를 임의로 정할 수 없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문15.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정답] ④

[해설]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은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이다.  
(참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	① 분납기간 ②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③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④ 연부연납기간 ⑤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中 ⑥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체납자의 국외 체류기간

문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③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참고)

신고조정사항(강제)	결산조정사항(임의)
해당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처리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① 소멸시효 완성분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④ 「민사집행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자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限) 단,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and 1천 원(비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③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④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 원 이하의 채권 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⑥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 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⑦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것 ⑧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문17.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만 원)

구분	공급가액	매입세액
과세사업	300	25
면세사업	200	10
과세·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	20
합계	500	55

- ① 8만 원
- ② 10만 원
- ③ 18만 원
- ④ 30만 원

[정답] ③

[해설]

면세사업 관련분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20 \times (200/500) =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합계 18

문18.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 ②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문19.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②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③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④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③

[해설]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문2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50만 원임)
-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주)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음)

- ① 360만 원
- ② 400만 원
- ③ 600만 원
- ④ 800만 원



[정답] ②

[해설]

구분	소득금액
○ 산업재산권의 양도	300만 원 × (1- 최소60%) = 120만 원
○ 문예 창작품	300만 원 × (1- 최소60%) = 120만 원
○ 고용관계없는 강연료	400만 원 × (1- 최소60%) = 160만 원
○ 퇴직한 후 수령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500만 원 이하)
합계	400만 원

(참고)

구 분	대상소득
1. 실제 지출비용이 원칙	일반적인 기타소득들
2. 최소 80% (확인되지 않거나 총수입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받은 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본다.)	1. 공익법인 상금, 부상 2. 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대회에서 받은 상금 3. 주택임주지체상금
3. 최소 60%(2019년 이후) (확인되지 않거나 총수입 금액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받은 금액의 60% 를 필요경비로 본다.)	1.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 2. 일정한 인적용역(강연, 해설, 계몽, 변호사 등 전문지식 용역) 3. 문예창작 4.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등의 양도·대여 5.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4.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당해 승마투표권 등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 당해 당첨 직전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5.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에 따라 80%~20%